

## 지조와 관용의 길(道):

### 석당(石棠)의 당시(唐詩) 새긴 피장(麓杖)의 교훈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이 흥 재

스스로 지조와 신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을까? 지조를 제대로 지키는 길은 지난하다. 관용을 참으로 베푸는 생활은 더욱 힘들다. 지조와 관용 어느 하나의 덕목도 진실로 실천하기 힘든 인간이요 세상이다. 하물며 지조와 관용의 길을 함께 실천함에 있어서라.

석당(石棠)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독일어를 가르쳐 주신 송영각(宋榮珏) 선생님의 아호이다. 당시 선배들로부터 전해 온 선생님의 별명이 ‘뜰배’였다. 그 별명을 모르면 모교의 동창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닉네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암울한 그 시절,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던 소박하면서도 웅골찬 야성적인 선생님의 풍모를 여실히 상징한 별명처럼 느껴진다. 훗날 선생님은 별명 그대로 돌 석(石), 배나무 당(棠)으로 석당(石棠)이란 호를 스스로 지어 애용하신다. 이런 면에서 선생님의 낙천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성품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어디 그 뿐이라? 석당의 의미는 석우(石牛) 등의 선어(禪語)처럼, 언어로 접근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은유한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뜻이 감추어진 것이 아닐까.

## 백이(伯夷) · 숙제(叔齊)를 흠모하며 기르는 고사리

석당은 1960년대 중후반 무렵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이어 안국동의 한옥에서 40여 년 줄곧 살고 계신다. 집에 들어서면 오른 쪽 처마 밑에 ‘백세청풍(百世淸風)’이란 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백세청풍’은 백이 · 숙제의 지조와 인덕을 기리는 비석에 새겨진 글이다. 이 비석은 석당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 수양산(首陽山) 아래 청풍교(淸風橋)의 오른 쪽에 자리한 백이 · 숙제의 사당(祠堂)인 청성묘(淸聖廟) 입구에 세워진 것이다. 백세청풍의 뜻은 “폭력은 폭력으로써가 아니라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백이 · 숙제의 맑은 기상은 영원히 빛나리라”고 석당은 풀이한다. 백이 · 숙제의 사당까지 창건하여 이들의 지조와 인덕을 흠모하던 해주의 석당 모교인 해주고보(高普) · 해주동중(東中)의 교지(校誌) 이름 역시 ‘백세청풍’이다. 이 ‘백세청풍’의 교지(원로동문의 글을 모은 근래 특별 제작된 단행본)에 석당(21회)은 “백이 · 숙제, 수양산, 채미가(采薇歌)”와 “춘망사(春望詞), Mignon”의 2편 글을 기고하였다.

형제 간인 백이와 숙제는 아버지 후계자로서의 임금(君) 자리를 서로 양보하며 인덕을 숭상하였다. 이들 형제는 은(殷)의 군주를 무력으로 치려는 주(周) 무왕(武王)의 공격이 인의에 반한다고 한사코 말렸으나, 무왕은 끝내 이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여 중국 북부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백이·숙제의 지조와 신의에 대한 석당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리하여 역사는 크게 전환되어 갔다. 각지의 제후들도 모두 다 주(周)를 종주로 추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백이와 숙제는 그러한 사태를 거역(拒逆)했던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폭(暴)에 대하여 폭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무인들의 방법에서는 그 어떤 인정도 발견할 수 없게 하여, 주 왕실에 복종한다는 것을 치욕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信義)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양산 산서성 영제현(永濟縣) 남쪽에 있는 산에 은거하면서 그 곳의 고사리를 캐 먹다가 아사(餓死)하며 아래와 같은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지조를 지켰던 마음을 읊은 것이 고사리를 캐는 노래, 즉 채미가이다. 석당은 백이·숙제의 지조를 흠모하여 한옥의 소담한 정원에서 직접 고사리를 기르며, 당호(堂號)까지도 채미당(采薇堂)으로 정하였다. 채미가의 4련의 가사 중 2련, 3련에 대한 석당의 해석을 직접 옮겨 보기로 한다.

이폭역폭혜(以暴易暴兮) 부지기비의(不知其非矣)  
 무왕은 폭력으로써 폭정을 바꾸고서도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노라.  
 신농우하(神農虞夏) 홀연몰혜(忽焉沒兮)  
 신농, 우, 하 등의 옛 성군(聖君)들이 홀연히 모두 다 떠나버린 이 세상이 아니더냐.

## ‘님’ 그리움으로 상징화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고독

또한 석당은 ‘백세청풍’의 교지에 설도(薛濤)의 춘망사 4수와 괴테(Goethe)의 미농(Mignon) 등 2편의 시를 모두 역주하여 실으면서, 이를 소개하는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대가로 38선, 그리고 6·25 사변의 발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휴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같은 민족끼리 남북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라 호칭되는 인간이 같은 피를 나눈 동포끼리 정서와 애정 등 모든 정신적 인간감정을 교류시킬 수 없다니 일찍이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상술한 우리 민족의 마르고 애절한 정서의 일부나마 두 외국시인의 서정시에 역주를 붙여 소개한다.

설도의 춘망사 4수 중 제 3수는 우리들에게 ‘동심초(김안서 역)’로 잘 알려져 있으나, 석당은 이 애절한 심정을 어떻게 소화하여 번역하였는지 감상해 보기로 한다.

풍화일장로(風花日將老) 바람에 시달리는 꽃잎은 날로 시들어가고  
가기유묘묘(佳期猶渺渺) 우리의 만날 날은 기약 없이 멀고 멀어라.  
불결동심인(不結同心仁)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은 맺지 못하고  
공결동심초(空結同心草) 사모하는 심정을 풀잎에 맺어 보다니 헛되기도 하여라.

석당은 왜 하필이면 춘망사와 함께 미농을 소개하였을까. 이 곳에 석당의 은밀한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열쇠가 비장되어 있다. 석당의 번역을 음미하기로 한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오로지 님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자만이
Weiss, was ich leide!	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
Allein und abgetrennt	나 홀로 그리고 고독하게 유리되어
Von aller Freude,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Seh' ich ans Firmament	나는 저 창공을 바라다 보네
Nach jener Seite.	저 쪽 너머로.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오오! 나를 진정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바로 그 사람
Ist in der Weite.	저 머나 먼 곳에 있구나.
Es schwindelt mir, es brennt	어지러워라, 불타고 있네
Mein Eingeweide.	나의 가슴은.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오로지 님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자만이
Weiss, was ich leide!	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

춘망사와 미농에 나타난 ‘님 그리움’은 석당의 경우 이중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닐까? 지조와 신의에 대한 원초적인 지향과 분단된 우리민족의 통일에 관한 염원이 오버랩되어 석당은 이 시를 소개한 것이리라. 이는 ‘지조’와 ‘통일’의 님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유리되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석당의 외로운 심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레싱(Lessing)의 ‘반지 비유 설화’와 관용의 강조

관용과 박애 실천의 전범으로 석당은 독일 계몽주의시대의 작가, 사상가인 고트홀트 레싱(Gotthold E. Lessing)의 희곡(시극)인 ‘현인 나탄(Nathan der Weise)’을 꼽는다. 석당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반지 비유의 설화(제3막 제7장)’를 번역하여 후학들에게 역설함으로써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이 희곡은 중세 중동지역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현인 나탄의 관용과 박애의 실천을 본받아 이 갈등을 해소, 조화함으로써 이상적인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려는 데에 그 사상의 핵심이 있다.

이 희곡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부호 나탄(Nathan), 나탄의 양녀 레하(Recha), 지배자인 술탄 살라딘(Saladin), 기독교의 신전기사(Tempelherr) 등이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살라딘은 포로가 된 신전기사를 사형에 처하기 직전, 자신의 죽은 동생과 닮은 모습인 그 신전기사를 무슨 힘에 끌려서인지 해방시켜 준다. 나탄이 멀리 동방무역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불이 나서 생명이 위독한 레하를 마침 그 곳을 순례하던 신전기사가 극적으로 구해 주고 표표히 사라진다. 나탄이 동방여로에서 무사히 귀가한 뒤 서로 흠모하던 레하와 신전기사는 만나게 되지만, 신전기사는 레하가 기독교인 부모의 고아로서 유대인 나탄의 양녀로 된 사실을 알고 고뇌에 빠진다. 한편 술탄 살라딘은 재정 궁핍의 타개책으로 나탄의 자금을 탐낸 나머지 그를 궁정으로 불러 속셈과는 달리 짐짓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서 어떤 것이 참 종교인지를 묻는다. 이 난처한 절대 절명의 질문에 나탄은 동방의 ‘반지 비유 설화’로 답하면서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임을 제시하자 이에 감동한 살라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용의 회심을 한다. 이를 극적 클라이맥스로 하여 나탄은 그동안 양녀 레하에 얽힌 숨겨 두었던 비밀을 털어 놓음으로써 레하와 신전기사는 친남매이고 바로 살라딘의 친조카(즉 죽은 동생의 자식들)란 기적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 이슬람교도인 살라딘, 기독교도인 신전기사, 유대교도인 레하가 외관상 각자 신앙하는 종교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의 같은 핏줄인 가족공동체라는 진실을 천명함으로써 희곡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현인이자 부자인 유대인 나탄이 권력자 술탄인 모슬렘 살라딘에게 들려준 ‘반지 비유의 설화’는 어떤 내용인가? 옛날 동방의 어느 나라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보석이 온갖 영롱한 광채를 내는 반지 하나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 반지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믿어 반지를 늘 끼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과 인간의 사랑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신통한 반지를 가보로 전해 받은 후손인 어느 아버지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워 하나뿐인 반지를 세 아들 각자 모두에게 물려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세 아들 중, 하나뿐인 반지를 전해 받지 못할 두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는 비밀리에 반지세공사를 불러 자신의 반지와 똑 같은 완벽

한 반지 두 개를 더 만들 것을 부탁하였다. 자신의 진짜 반지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작된 두 개의 반지를 세공사로 건너 받은 아버지는 아들 셋을 각각 따로 불러 반지 하나씩을 은밀히 물려주며 은총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들 셋은 아버지가 돌아가자 각자 반지를 끼고서 자신의 반지가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비난하면서 가장행세를 하려고 서로 다투게 되어 그 사랑스러운 성품은 없어지고 말았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들을 속일 리 없으니 자신을 속인 형제 중 배신자를 찾아 복수하겠다고까지 다짐을 하게 되어 결국 재판에 호소하게 되었다. 재판관은 대대로 물려받은 반지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받는 은총의 신통력이 있다는 핵심을 지적하여 판결을 하지 않고, 결국 반지의 진짜 여부는 반지 자체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충고를 세 아들에게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 없는 공평한 아들 사랑을 믿고 본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반지의 신통력이 실제 생활에 나타나도록 서로 경쟁하라고 당부한다. 진정한 화목과 온유함 그리고 바른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신통력이 먼 후손에게까지 현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재판관은 세 아들에게 타이른다.

석당은 레싱의 이 ‘반지 비유 설화’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종교, 신조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자기분위의 명분적인 맹목성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관용과 박애의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데에 우리 각자가 조화롭게 헌신하자는 것으로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 당시(唐詩) 새긴 아주까리 지팡이(피장)의 멋

석당의 안국동 한옥 대문 밖 골목길의 담벼락 밑에는 몇 그루의 아주까리가 늘 자라고 있다. 1년생인 아주까리의 큰 줄기가 굽어지기 시작하면 버팀목을 대어 곧게 크도록 북돋는다. 다 자란 아주까리 큰 줄기를 어림잡아 지팡이 길이로 몇 개 잘라 대문 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린다. 잘 마른 지팡이 감을 다듬고 윤이 날 정도로 손질하면 ‘아주까리 지팡이’가 탄생한다. 이 모든 과정의 노역을 석당 스스로 직접 하신다. 아주까리가 피마(薏麻)이니, 아주까리 지팡이가 곧 피장(薏杖)이다. 피장은 아주 가볍고 단단하여 예부터 장수 지팡이로 애용되었다.

석당의 독창적인 멋과 풍류는 이 아주까리 지팡이의 돌레에 애송하는 당시 몇 수를 펜글씨로 새긴 데서 드러난다. 어른 엄지손가락 두세 개 정도의 굽기인 고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휘어지기도 한 지팡이의 둥그런 돌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펜으로 글씨를 새기는 일은 정밀한 공예작업이다. 7, 8수의 당시를 좌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하 줄을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 끝까지 맞추어 둥그란 지팡이에 특수한 펜으로 한자 한자 쓰는 일은 곧 몰아(沒我)의 고절(孤節)한 수행이다. 내면의 지조와 신의를 다지는 석당의 자기수련이다.

오랜 인고의 정치한 작업이 끝나면 지팡이에 새긴 당시가 물이나 습기로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니스 칠로 정교하게 마무리 한 뒤, 지팡이 맨 끝에 고무 밸브를 끼워 지면과의 접촉이 부드러워지도록 한 후에야 드디어 석당 특유의 ‘당시 새긴 피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석당은 이 지팡이로 한가로이 세상을 거닐면서 깊은 시심(詩心)에 젖어 물아일체의 포용정신으로 지극한 관용의 현묘지도(玄妙之道)인 풍류를 즐긴다. 혼자서만 이 피장의 멋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석당은 그동안 많은 피장을 지인들에게 사심 없이 선사하면서 지조와 관용의 인품을 전파하였다.

석당은 작년 연말 평소 애용하시던 ‘당시 새긴 피장’을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필자에게 선사하였다. 필자의 정년 이후의 생활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석당의 말없는 가르침이리라. 이제 필자는 석당 앞에서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 지조와 관용을 아우르는 풍류의 멋을 배우게 된 행운을 갖게 된 것이다. 석당이 선사한 당시(唐詩)를 새긴 지팡이의 제목은 ‘주옥당시(珠玉唐詩) 칠언율시(七言律詩) 칠인결작선(七人傑作選) 장수피장(長壽薳杖)’이라고 하여 지팡이에 세로로 쓰고 있다. 지팡이의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새긴 일곱 명의 시인과 그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두보(杜甫)의 촉상(蜀相), 이백(李白)의 금릉성서루월하음(金陵城西樓月下吟), 왕발(王勃)의 등왕각(騰王閣),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백거이(白居易)의 방언(放言), 이상은(李商隱)의 금슬(錦瑟), 한유(韓愈)의 좌천지남관시질손상(左遷至藍關示姪孫湘)이다. 그 중 석당의 인생관에 가장 가깝다고 하여 애송하는 백거이의 ‘방언’을 석당 자신의 번역을 통해 감상해 보기로 한다.

방언(放言)

함부로 말해 본다.

태산불요기호말(泰山不要欺毫末)

중국의 오악중의 하나인 태산은 털끝 같은 아주 사소한 존재에 대해서는 속이지 않고 또한 속일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로다.

안자무심선로팽(顏子無心羨老彭)

32세로 생애를 마친 안자 또한 80살까지 살았다는 팽조(彭祖)를 선망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송수천년종시후(松樹千年終是朽)

천년간을 살고 버티어 온 소나무도 마침내는 죽고 썩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근화일일자위영(槿花一日自爲榮)

그 반면에 하루 동안만 꽃을 피우고 만다는 무궁화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영화를 누리는 법이로다.

하수연세상우사(何須戀世常憂死)

그런데 인간은 어찌서 현세의 삶에만 연연히 집착하며 항상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역막혐신만염세(亦莫嫌身漫厭世)

그리고 또 인생은 자기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싫어해서도 안 되는 것이로다.

생사거래도시환(生死去來都是幻)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즉 왔다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환인에락계하정(幻人哀樂繫何情)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인간이 어찌서 희로애락이라는 자기감정에 얽매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요?

## 얇은뱅이책상과 평화통일의 비원(悲願)

석당의 사랑방을 곁한 서재에는 주석 손잡이의 서랍이 양옆으로 두개 나란히 달린 얇은뱅이책상이 있다. 이 책상에서 석당은 레싱의 ‘반지 비유 설화’ 등 독일작품과 많은 당시를 번역하고 주해하여 친지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친히 주해한 당시와 독일시를 새해가 되면 제자들에게 일일이 연하장으로 부치면서 가리지 않는 사랑의 훈도를 베풀었다. 바로 이 책상은 석당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80년간 사용한 것으로서 석당의 정신적 분신이자 한국의 격동적 현대사를 묵묵히 지켜본 현장증인이다. 일제시대에 해주고보를 다니고 해방 후 1946년 경성대학(1948년 국립대학교로 설립된 서울대의 전신) 예과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다가 1950년 부산으로 피난한 뒤 1960년대 중반 서울로 온 석당과 운명을 줄곧 같이 한 얇은뱅이책상이기도 하다. 올해(계사년) 미수(米壽)를 맞은 석당은 세속의 명리에 초연한 채 오로지 고등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침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책상과 고락을 함께 나누었다. “어느 사학도(史學徒)의 젊은 시절”의 고뇌와 통한(痛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얇은뱅이책상은, 석당이 ‘백이·숙제의 지조’와 ‘레싱의 관용’을 ‘당시 새긴 피장’으로 형상화하는 데 밑받침 노릇을 한 인고(忍苦)와 침묵의 동반자이다.

백세청풍의 현판을 걸어놓고 고사리를 몸소 기르는 석당은 백이·숙제처럼 자신 내면의 지조와 신의를 줄곧 함양하면서 이를 옹골차게 다지는 생활을 하였다. 어떤 명분에 의하든 일체의 폭력사용을 거부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덕으로써 세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일 터이다. 석당은 우리나라가 영구중립의 평화통일국가로 거듭 태어

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비원을 언젠가 힘주어 밝힌 적이 있다. 나아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용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인류공동체로 지구가 나아가길 석당은 절실히 염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미농과 춘망사 시의 소개를 통해 이를 상징화하고 피장의 당시 첫 수를 두보의 촉상(蜀相)으로 하여 천하통일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며, 특히 레싱의 반지 비유 설화를 역설함으로써 진리는 하나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레싱이 제시하는 관용의 기초인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사상은 일찍이 인도 유마(維摩)의 불이법문(不二法門)과, 유교·불교·도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중국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의 평화적 삶’이 제대로 꽃피우려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양심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석당의 지조와 관용의 생활이 상징하는 전체적 메시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렇듯 석당의 ‘당시 새긴 피장’의 풍류와 멋으로 인해 ‘현인 나탄의 반지’는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현자 석당의 지팡이’로 전화된 것이 아닐까! 당시 새긴 아주까리 지팡이를 벗 삼아 유유히 걸어가는 지조와 관용의 길(道)이야말로 석당화(石棠花) 향기 온 누리 가득한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되어 천고(千古)를 맑히리라.